

# 24

## 주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

요 13:21~30, 마 27:3~10

찬송가 510장 (갯세마네 동산에), 찬양 41장 (내 마음 깊은 곳)



1.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저버린 유다의 삶과 그 비참한 최후를 압니다.
2.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었음을 알고 경계를 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 13:26~27)



## 을 이해하기

가롯인 시몬의 아들 유다는 갈릴리가 아닌 유대 출신으로서 예수님에 의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열한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주님의 가르침도 직접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신도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주님을 자신의 출세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돈을 맡았던 그는 거기서 돈을 조금씩 훔쳐왔는데 그러한 그의 죄는 점점 의도적인 범죄로 발전해갔습니다. 마귀는 그런 유다를 주의하여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주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주님을 배반하고 은 삼십에 주님을 팔아 버립니다. 주님의 제자 유다가 마귀의 쓰임을 받는 배신자 유다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저버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지 못했기에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음으로써 그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맙니다. 그는 주님을 삼 년 반이나 따라다니는 최고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대로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 26:24)

The Son of Man indeed goes just as it is written of Him, but woe to that man by whom the Son of Man is betrayed! It would have been good for that man if he had not been born. (Mt 26:24)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한 열두 제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까닭은 무엇인가요(마 26:14~16, 요 12:6, 13:29)?

- 2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결과를 비교해 봅시다.

구분	베드로	가롯 유다
범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함	
회개	죄책감으로 눈물로써 회개하고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심함	
결과	주님께 용서받고 초대 교회의 큰 일꾼이 됨	

- 3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롯 유다도 씻기시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요 6:70~71, 13:10~11, 17:12)?

- 4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 넘기고 배반하게 됩니다. 나의 생활 중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보고 반성해 봅시다(골 3:5, 딤페전 6:10).



을 삶에 적용하기

###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요 12:6

---

---

---

---

---

---

---

---

이

요 13:2

---

---

---

---

---

---

---

---

화

골 3:5

---

---

---

---

---

---

---

---

↑

딤편 3:3

---

---

---

---

---

---

---

---

가  
↓

딤편 6:9

---

---

---

---

---

---

---

---

미  
↓

딤편 6:10

---

---

---

---

---

---

---

---

히  
↓

히 13:5

---

---

---

---

---

---

---

---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옛 사람들은 황금을 ‘혹사심’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총명과 판단을 흐리게 하며 양심을 부패케 하고 정욕에 눈이 어두워지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돈의 관계는 마치 배와 물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이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물 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나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삶은 파선된 배와 같아져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딤후 6:10)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나라와 민족을 망치고 교회를 부패케 합니다.

돈에 대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건물을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으나 문화를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황금 십자가를 살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영생, 천국, 그리고 구원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만든 육신적인 것은 대부분 돈으로 잠시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돈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질문 있어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식일(安息日)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처럼,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주일(主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며, 그 날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받고 나서, 즉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의 첫째 날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힘써 일을 해야 안식한다’고 말하는데, 반면에 신약은 구원을 받고 일을 시작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일은 지키기 위한 날이 아니라, 구원 받은 성도가 주님을 찬송하고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주일이 공휴일로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롬 14:5~6)

이 말씀과 같이 모이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때도 매주일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전 16:2)